한국심리학회지 : 임상
The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2008, Vol. 27, No. 1, 311-332

성격장애 진단검사 의존성과 회피성 소척도의 신뢰도와 타당도

노 은 정　　황 순 택†　　구 형 모　　이 숙 희

충북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에서는 서재삼과 황순택(2006)의 성격장애 진단검사 중 의존성 소척도와 회피성 소척도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총 566명의 대학생과 일반인에게 성격장애 진단검사의 두 소척도와 이들의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한 준거 검사들이 실시되었다. 이들 중 60명에게는 3주 간격으로 두 소척도의 재검사를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두 소척도 모두 내적 일치도와 검사-재검사 신뢰도가 양호하였다. 요인분석 결과 산출된 각 소척도의 요인들은 DSM-Ⅳ의 진단준거와도 적절하게 부합하였다. 또한 두 소척도와 준거지표들간 상관분석을 한 결과 두 소척도가 각각 의존성과 회피성의 개념을 잘 반영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상의 결과는 성격장애 진단검사의 의존성 소척도와 회피성 소척도가 각각 의존성과 회피성을 신뢰롭고 타당하게 평가하는 도구임을 시사하는 것이다.

주요어 : 의존성 소척도, 회피성 소척도, 신뢰도, 타당도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 황순택 / 충북대학교 심리학과 /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개신동
Tel : 043) 261-2187 / E-mail : hstpsy@chungbuk.ac.kr

www.kci.go.kr

'의존적'이고 '회피적'인 성향은 누구에게나 존재할 수 있다. 적절한 수준의 의존과 회피는 적응적인 기능을 하며, 삶에 있어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다. 의존은 혼자라는 것에 대한 불안에 대처하기 위한 능력이고 회피는 불편한 사회적 상황에 직면하는 데 대한 불안에 대처하기 위한 능력으로, 불확실하고 불안한 상황으로부터 개인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 기제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다른 많은 성격특성이 그런 것처럼 의존과 회피또한 과도하면 생활에서 부적응을 초래하게 된다. 의존성 성격장애는 보호받고 싶은 욕구로 인하여 타인에게 매달리며 헤어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특징이다(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1994). 의존성 성격장애로 진단된 개인은 타인으로부터 심리적, 또는 조언적인 지지대상을 획득하기 위해 자신이 선호하는 전략, 즉, 의존이라는 전략을 지나치게 사용한다(Bornstein, 1998). 의존성 성격장애의 핵심적인 특징은 대인관계 영역에서의 문제(Farmer, 2000; Pincus & Gurtman, 1995)로, 자신을 돌보아 주고 지지해줄 관계의 형성과 유지에 대한 욕구가 강하나 정작 이로 인하여 대인관계에서 어려움과 좌절을 빈번히 경험한다. 과도한 의존욕구와 대인관계에서 받는 스트레스는 외로움과 우울, 불안 그리고 자살 등 심리적, 사회적으로 부적응적이고 심각한 정서적·행동적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Beck, 1983; Blatt, 1974; Bornstein & O'Neill, 2000; Linden, 2006; Pincus & Wilson, 2001). 실제로, 의존성 성격장애는 DSM-Ⅳ의 축 Ⅰ장애와도 상당한 공병을 보이며, 축 Ⅱ의 경계선·회피성·히스테리성 성격장애와도 공존하는 경우가 많다.

회피성 성격장애는 지나친 대인불안으로 인해 사회활동에 제한이 따르고 부적절감을 느끼며, 부정적인 평가에 과민한 것이 특징이다(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1994). 이들의 내면에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자 하는 욕구가 자리 잡고 있지만 상대방에게 거부당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에 대인관계를 적극적으로 회피한다(Millon & Davis, 1996). 결국 이러한 회피 행동은 그들의 애정욕구를 좌절시키게 되며, 내면의 소망과는 달리 고립되고 빈곤한 대인관계를 형성하게 된다. 이로 인해 외로움을 비롯하여 불안, 우울(Anderson & Harvey, 1988; Rees, Hardy, & Barkham, 1997), 약물의존(Beidel, Turner, & Dancu, 1985; Carrigan & Randall, 2003)을 비롯한 부적응적인 심리사회적 결과들이 나타나기도 한다. 회피성 성격장애또한 DSM-Ⅳ의 축 Ⅰ장애와 상당한 공병을 보인다. 특히 사회공포증과는 사회적 회피 상황의 범위나 사회적 염려의 정도에서 차이를 보일 뿐 동일하거나 유사한 증상이 서로 다르게 발현된 결과이며, 질적으로는 두 진단이 동일하다는 주장도 있다(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1994; Rapee & Heimberg, 1997). 또한, 정신분열증의 병전 성격유형으로도 회피성 성격장애가 가장 빈번하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Solano & Chávez, 2000). 축 Ⅱ 장애 중에서는 의존성·분열성 성격장애와 흔히 공존한다.

의존성 성격장애와 회피성 성격장애는 그 자체로는 경계선 성격장애나 반사회성 성격장애처럼 충동성이나 공격성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고 타인에게 직접적으로 피해를 주는 경우도 적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주목 받을 만큼 큰 문제를 드러내지는 않는다. 그러나 여러 가지 심각한 심리사회적 문제들을 파생시켜 심리적 안녕감이 저하되고 삶의 질 또한 열악해지는데 이러한 경향은 특히 회피성 성격장애에서 더욱 두드러진다(Cramer, Torgersen, &

www.kci.go.kr

Kringken, 2006). 특히 DSM의 제 1 축 주요임상증후군과 제 2 축 성격장애가 함께 동반되는 경우 기능 수준이 더 악화되고 부적응의 정도가 더 심해진다. 또한 성격장애는 보다 만성적이고 치료에 대한 반응과 예후가 부정적인만큼 정확한 진단의 중요성이 강조되기도 한다(Reich & Green, 1991; Skodol, Oldham, Hyler, Stein, Hollander, Gallaher, & Lopez, 1995). 의존성 성격장애와 회피성 성격장애 모두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보고되는 축 1 장애인 주요우울장애의 경우 성격장애가 없는 경우보다 있는 경우에 증상 완화가 더디고 회복에 어려움이 있으며, 회피성 성격장애가 있는 사회공포증 환자들은 회피성 성격장애가 없는 경우보다 사회공포증상, 불안, 우울, 사회적 기능의 손상 등이 더욱 심각하다(Holt, Heimberg, & Hope, 1992; Turner, Beidel, & Townsley, 1992).

의존성 성격장애와 회피성 성격장애는 불안과 두려움을 공통적인 특징으로 한다. 두 성격장애는 대인관계 양상에서 중요한 차이가 있지만(Pincus & Wiggins, 1990; Soldz, Budman, Demby, & Merry, 1993) 많은 연구에서 두 장애가 서로 상당한 중첩을 보이며, 다른 성격장애들보다 이 두 장애 간에 공병률이 높은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Gude, Karterud, Pedersen, & Falkum, 2006; Rees, Hardy, & Barkham, 1997; Reich, 1990). 이러한 공병현상의 원인에 대해 많은 가설적인 설명들이 제기되어 왔다(황순택, 1995). 예를 들어, Nestadt, Hsu, Samuels, Bienvenu, Reti, Costa, 그리고 Eaton(2006)은 DSM-Ⅳ의 두 성격장애의 진단기준이 하나의 잠재적인 요인에서 기인한다고 주장하였다. 두 성격장애를 같은 범주로 포함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으나(Reich, 2000), 현재로는 DSM-IV의 기술에 의거하여 두 장애를 변별적으로 측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외국에서는 의존성 성격장애와 회피성 성격장애를 평가할 수 있는 도구가 개발되고 활용되어 왔으나, 국내에서는 의존성 성격장애와 회피성 성격장애의 타당한 평가 도구의 개발이 미흡하며 관련된 연구 또한 찾아보기 어렵다. 현재까지 타당도와 신뢰도가 연구된 도구로는 한국판 MMPI 성격장애 척도(MPDS; 박병관, 김진영, 노주선, 안창일, 신동균, 박영숙, 1991)와 한국판 PDQ-4+(김동인, 최말례, 조은정, 2000), 한국판 MCMI(최영안, 2002) 정도가 있다. 그러나 이들은 모두 외국에서 제작된 도구들을 번안하거나 일부 문항을 첨삭하여 타당화한 것으로, 비록 우리나라에 적합하게 수정을 하였으나 성격특성의 사회문화적 차이가 적절하게 반영되었는지 확인하기는 어렵다. 우리나라와 일본, 인도 등을 비롯한 일부 동양적 문화권에서는 대인관계에서의 유대감과 상호의존성에 매우 높은 가치를 둔다. 그러나 서구사회에서는 자율성과 자립성을 보다 강조하고 이에 대해 많은 가치를 두고 있다(Bornstein, 1992, 1993; Widiger, & Bornstein, 2001). 현재 국내에서 사용되고 있는 성격장애 척도는 주로 미국 등의 서구사회에서 개발된 것에 기초한 것이기 때문에 특히 의존성 성격장애의 경우 과잉진단될 가능성이 다분히 있다. 수줍음과 회피에 대한 적절한 기준 역시 문화와 인종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나므로 우리 문화에 적합한 도구의 개발이 필요하다.

황순택(1995)은 기존의 성격장애 척도가 가진 이러한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 국내 임상가들의 평정을 통해 DSM-Ⅳ에 제시된 10개 성격장애 각각의 전형적인 특징들을 수집한 바 있다. 이를 바탕으로 서재삼과 황순택(2006)은 새로운 성격장애 진단검사를 개발하

www.kci.go.kr

고 신뢰도와 타당도를 확인하였다. 성격장애 진단검사는 성격장애에 대한 국내 임상가들의 경험적인 개념이 반영된 준거목록으로 구성되어 있어 MMPI 성격장애 척도, PDQ-4+ 등 외국에서 제작된 도구를 바탕으로 타당화된 도구에 비해 의존성 및 회피성에 대해 우리나라의 사회문화적 특성을 잘 반영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서재삼과 황순택(2006)의 연구에서는 10개 성격장애 소척도의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준거지표로 MMPI 성격장애 척도와 PDQ-4+를 사용하는 데 그쳐 10개의 개별 소척도 각각에서 추가적인 타당도 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즉, 의존성 및 회피성 소척도와 관련하여서도 각 성격특성과 유사하거나 서로 관련을 보이는 구성개념을 측정하는 다른 척도들을 사용한 타당도 분석이 추가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서재삼과 황순택(2006)의 연구에서는 각 성격장애 소척도의 구성성분을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성격장애의 유형과 수준을 측정하는 데는 유용하지만 구체적으로 각 소척도들이 어떤 성분들을 측정하고 있는지는 알기 어렵다.

본 연구에서는 성격장애 진단검사의 의존성 소척도와 회피성 소척도의 신뢰도를 재확인하고, 두 소척도 각각의 요인구조를 확인하여 구성성분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또한 의존성 및 회피성과 동일한 구성개념을 비롯하여 의존 특성 및 회피 특성이 가지는 하위 구성개념들을 준거지표로 하여 수렴타당도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경험적인 연구와 실제 임상 현장에서 높은 공병을 보이고 있는 두 성격장애 간의 차이점들이 성격장애 진단검사에도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두 성격장애의 변별에 본 척도가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

연구참여자

충북 청주시, 충주시, 대전광역시, 그리고 광주광역시 소재 4년제 대학에서 교양과목을 수강하는 대학생과 동일한 지역의 일반인 60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만 18세에서 60대에 이르는 연령 범위에서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수집한 자료 중 반응이 누락된 문항이 지나치게 많거나 일정한 패턴으로 응답하는 경우 등 응답의 성실성이 명백하게 의심되는 자료를 제외한 총 566부를 분석하였다.

측정도구

성격장애 진단검사 의존성 소척도

이 소척도는 서재삼과 황순택(2006)이 문항을 구성하고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한 성격장애 진단검사에서 의존성 성격장애의 정도를 측정하는 척도이다. 총 15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문항은 '전혀 아니다(1)'에서부터 '매우 그렇다(4)'까지 4점 척도로 반응하게 되어 있다. 점수 범위는 15~60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의존적인 성향을 의미한다. 서재삼과 황순택(2006)의 연구에서 내적 일치도는 .70,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89로, 양호한 수준의 신뢰도가 보고되었다.

성격장애 진단검사 회피성 소척도

이 소척도는 서재삼과 황순택(2006)이 문항을 구성하고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한 성격장애 진단검사에서 회피성 성격장애의 정도를 측정하는 척도이다. 총 11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문항은 '전혀 아니다(1)'에서부터

www.kci.go.kr

'매우 그렇다(4)'까지 4점 척도로 반응하게 되어 있다. 점수 범위는 11~44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회피적인 성향을 의미한다. 서재삼과 황순택(2006)의 연구에서 내적 일치도는 .69,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84로, 양호한 수준의 신뢰도가 보고되었다.

대인관계 의존 검사(Interpersonal Dependency Inventory; IDI)

대인관계 의존 검사는 Hirschfeld, Klerman, Gough, Barrett, Korchin, 그리고 Chondoff(1977)가 개발한 것으로, 과도한 의존성이나 의존성 성격장애의 평가에 사용되는 도구다. 국내에서는 김영환과 홍상황(1999)이 번안하였다. 이 검사는 정서적 의존, 자신감 부족, 자율적 주장 등의 하위척도, 총 4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자율적 주장 척도는 자기주장보다는 독립성과 관련된 내용들이 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부터 '매우 그렇다(4점)'까지 4점 척도로 반응하게 되어 있다. 김영환과 홍상황(1999)의 연구에서 내적 일치도는 .55~.74로 보고되고 있다.

한국판 도식질문지(Korean Schema Questionnaire; KSQ)

심각한 수준의 심리적 문제를 초래하는 만성화된 16개의 초기 부적응 도식을 측정하기 위해 Young(1990, 1991)이 개발한 것으로, 한국판은 조성호(2001)가 번안하였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부터 '전적으로 그렇다(6점)'의 6점 척도로 반응하게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측정되는 도식의 특징이 더 많이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본 연구에서는 의존 요인과 상실우려 요인을 수렴타당도 지표로 사용하였다. 의존 요인은 7문항으로 점수범위는 7~42점이며, 상실우려 요인은 9문항으로 점수범위는 9~54점이다. 조성호(2001)의 연구에서 내적 일치도는 의존에서 .90, 상실우려에서 .87로 보고되었다.

한국판 사회적 회피 및 불편감 척도 (Korean Social Avoidance and Distress; K-SAD)

이 척도는 사회적 상황에서 불안을 경험하는 정도와 잠재적으로 혐오적인 사회적 상황을 회피하려는 경향을 측정하기 위해 Watson과 Friend(1969)가 개발한 28개 문항의 자기보고식 검사다. 이 척도이 한국판(이정윤과 최정훈, 1997)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부터 '매우 그렇다(5점)'까지 5점 척도로 구성하였다. 점수범위는 28~140점이고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회피 및 불편감의 정도가 높음을 나타낸다. 이정윤과 최정훈(1997)의 연구에서 대학생 집단과 일반인 집단의 내적 일치도는 각각 .92, .92 였으며, 대학생 113명을 대상으로 한 4주 간격의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88이었다.

역기능적 신념 검사(Dysfunctional Beliefs Test; DBT) 단축판

이 검사는 사회불안 및 사회공포증과 관련된 역기능적 신념의 정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조용래와 원호택(1999)이 개발한 7점 척도 70문항의 자기보고형 검사를 홍세희와 조용래(2006)가 6점 척도, 36개 문항으로 재구성한 것이다. 문항들은 본인의 평소 신념과 일치하는 정도 혹은 문항 내용에 대해 동의하는 정도를 '전혀 일치(동의)하지 않는다(1점)'에서부터 '전적으로 일치(동의)한다(6점)'에 평정하도록 되어 있다. 사회적 자기에 대한 부정적 개

www.kci.go.kr

념과 타인의 인정에 대한 과도한 요망, 그리고 타인 및 대인관계에 대한 부정적인 신념의 세 하위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원판인 조용래와 원호택(1999)의 연구에서는 각 하위척도별 내적 일치도는 .95, .91, .90으로 보고되었으며, 반분신뢰도는 .96, .92, .91로 보고되었다. 2주 간격의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각각 .81, .83, .83으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도 안정된 척도임이 확인되었다.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척도-단축형 (Brief Fear of Negative Evaluation; BFNE)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척도는 Watson과 Friend(1969)가 30문항으로 제작한 척도에서 전체점수와 .50 이상의 상관을 보이는 문항들만 뽑아서 Leary(1983)가 만든 것이다. 이를 최정훈과 이정윤(1994)이 우리말로 번안하고 신뢰도와 타당도를 확인한 것으로 사회적 불안의 한 측면인 타인에게서 부정적인 평가를 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측정한다. 총 12문항이며, '전혀 그렇지 않다(1)~매우 그렇다(5)'의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점수 범위는 12~60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을 측정하게 된다. 이정윤과 최정훈(1997)의 연구에서 대학생 집단과 일반집단에서 내적 일치도는 모두 .90이었으며, 4주 간격의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80이었다.

대인관계 문제 검사(Korean Inventory Interpersonal Problems; KIIP)

대인관계문제 검사는 대인관계 원형모델에 근거하여 개인이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여러 가지 대인관계문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Horowitz, Rosenberg, Baer, Ureño, 그리고 Villaseñor(1988)가 개발한 것으로, 한국판 검사는 김영환, 진유경, 조용래, 권정혜, 홍상황, 그리고 박은영(2002)이 표준화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대인관계문제 검사 중 의존성 성격장애에서 흔히 상승하는 것으로 보고된 비주장성과 과순응성, 자기희생 소척도를 의존성 소척도의 수렴타당도 지표로 사용하였고, 회피성 성격장애에서 흔히 상승하는 것으로 보고된 비주장성, 비사회성, 냉담 소척도를 회피성 소척도의 수렴타당도 지표로 사용하였다. 각 소척도는 모두 10문항씩으로 구성되어 본 연구에서 사용한 문항은 총 50개로, 특정 대인행동을 '하기 어려워' 하거나 '너무 많이' 하여서 문제가 되는 정도를 1~5점까지 5점 척도로 측정하게 된다. 김영환 등(2002)의 연구에서 내적 일치도는 .68~.85, 8주 후 검사-재검사 신뢰도의 경우 .67~.78이었다.

자료 수집

본 연구에 사용될 질문지는 총 221개 문항으로 구성되었고, 실시에 소요된 시간은 약 30분 정도였다. 검사-재검사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해 대학생과 일반인 각 30명씩 총 60명에게 3주 간격으로 성격장애 진단검사의 의존성 소척도와 회피성 소척도를 재실시하였다. 연구를 위한 자료수집에 동의하는 사람에 한해 설문을 실시하였으며, 설문 시작 전에 본 설문의 응답에 충실히 응답할 것에 대해 서명을 받았다.

분석 방법

수집한 자료는 SPSS 통계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성격장애 진단검사의 의존성 소척도와 회피성 소척도의 신뢰도 검증을 위

www.kci.go.kr

해 내적 합치도(cronbach-α)을 산출하고, 두 번 실시된 검사 점수간 상관(검사-재검사 신뢰도)을 산출하였다. 또한 타당도 검증을 위해 두 소척도 각각 요인분석을 실시하고 대인관계 의존 검사(IDI)와 한국판 도식질문지(KSQ), 한국판 사회적 회피 및 불편감 척도(K-SAD), 역기능적 신념 검사(DBT) 단축판,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척도(BFNE), 대인관계 문제 검사(KIIP)와의 상관을 산출하였다. 또한, 타당도가 입증된 두 소척도의 모든 문항으로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공통요인과 비공통요인을 구분하였다. 각 소척도에서 순수하게 상위 25%에 해당하는 집단을 추출하여 공통요인과 비공통요인에서 각각 집단간 평균 차이를 검증하고 의존성 소척도의 개별 문항과 회피성 소척도의 총점 및 개별요인 점수, 회피성 소척도의 개별 문항과 의존성 소척도의 총점 및 개별요인 점수 간 상관을 비교하여 두 소척도의 임상적 유용성을 확인하였다.

결 과

인구통계학적 변인

총 566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이 중 남자는 284명(50%), 여자는 282명(50%)으로 평균연령은 30.6세(*SD*=12.2)였다. 전체 대상자 중 대학생은 286명(남자 151명, 여자 135명)으로 평균연령은 21.6세(*SD*=3.1)였으며, 일반인은 280명(남자 133명, 여자 147명)으로 평균연령은 39.8세(*SD*=11.1)였다(표 1). χ^2 검증 결과 대학생과 일반인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성분포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χ^2=.1.59, *n.s.*).

성격장애 진단검사 의존성 소척도

신뢰도

총 566명의 자료를 토대로 성격장애 진단검사 의존성 소척도의 내적 일치도를 보기 위해 Cronbach-α 계수를 산출한 결과 대학생 집단에서는 .73, 일반인 집단에서는 .76, 전체집단에서는 .74 였다. 의존성 소척도의 개별 문항과 의존성 총점 간의 상관은 2번 문항(.15)을 제외하면 .31(76번)~.65(69번)의 범위였다. 또한, 개별 문항을 척도에 포함시키지 않았을 경우의 Cronbach-α 계수는 .70(69번)~.75(2번)로 내적 일치도를 저하시키고 있는 문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 모든 문항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한편, 응답자 중 대학생 30명, 일반인 30명, 총 60명을 대상으로 3주 간격으로 검사-재검사 신뢰도를 산출한 결과, 대학생, 일반인, 전체 집단 모두에서 상관계수 .82로 높은 수준의 안정성이 확인되었다.

표 1. 인구통계학적 변인

	성		연 령					전체
	남자(%)	여자(%)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이상(%)	
대학생	151(27)	135(24)	100(18)	181(32)	5(1)	-	-	286(51)
일 반	133(24)	147(26)	2(0)	63(11)	69(12)	80(14)	66(12)	280(50)
전 체	284(50)	282(50)	102(18)	244(43)	74(13)	80(14)	66(12)	566(100)

www.kci.go.kr

타당도

요인분석. 의존성 소척도의 요인구조를 알아보기 위해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주성분분석을 통해 Kaiser 기준인 고유치(eigenvalue)가 1이 넘는 요인을 살펴본 결과 5개 요인이 추출되었으며, 문항과 요인의 내용을 고려하여 요인수를 4개로 지정한 후 요인분석을 재실시하였다. 이를 배리맥스(varimax) 회전시킨 결과를 표 2에 제시하였다. 4개 요인은 '열등감' 3문항, '정서적 의존' 4문항, '염려감' 4문항, '비주장성' 4문항으로 각각 묶였으며, 전체 변량의 49.70%를 설명하였다. 27번 문항의 경우 본 요인분석에서는 열등감에 포함되었으나, 요인부하량과 내용을 고려할 때 열등감보다는

표 2. 의존성 소척도의 요인구조

	문 항	요인부하량			
		1	2	3	4
103	나의 자질이나 능력은 남보다 부족하지 않다.*	.78			
86	나는 여러 면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능력이 떨어진다.	.77			
68	어떤 일을 결정하거나 책임을 맡는 것은 매우 부담스럽다.	.57		.42	
100	가깝게 지내는 사람이 어느 날 나를 떠나버릴 지도 모른다는 걱정을 한다.		.65		
88	가까운 사람이 떠나게 되면 무척 당황하게 된다.		.64		
30	나 혼자 있으면 왠지 마음이 불안하여 집중하기가 어렵다.		.62		
19	가까이 지내던 사람과 헤어지게 되면 대신 다른 누구든 의지할 사람이 있어야 한다.		.61		
83	무슨 일이든 걱정을 별로 하지 않는다.*			.74	
31	다른 사람으로부터 비난받거나 외면당해도 크게 상심하지 않는다.*			.68	
69	늘 해오던 일이 아닌 새로운 일은 잘 해낼 자신이 없고 걱정이 앞선다.	.48	.31	.50	
102	무슨 일을 결정할 때는 다른 사람의 조언을 들어서 하는 것이 마음 편하다.			.30	
2	나 자신의 입장이나 권리보다는 상대방이 원하는 바를 고려하여 행동한다.				.71
76	다른 사람의 부탁이나 지시를 거절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				.68
82	반대 의견이 있으면 상대가 서운해 하거나 화를 내더라도 직접 말을 한다.*			.35	.54
27	정당한 경우에라도 다른 사람에게 주장이나 요구를 잘 하지 못해 망설이는 경우가 있다.	.39		.32	.34
	고유값	3.48	1.46	1.35	1.17
	설명변량(%)	23.17	9.74	8.99	7.80
	누적설명변량(%)				49.70

주. 요인부하량은 .30 이상인 것만 제시되었음. 표에 제시된 문항번호는 서재삼·황순택(2006)의 성격장애 진단검사를 기준으로 한 것임. *은 역채점 문항.

www.kci.go.kr

비주장성에 더욱 적합할 것으로 판단되어 비주장성에 포함시켰다. 의존성 소척도의 총점과 각 요인들 간의 상관은 .78~.62로 유의미하였으며, 네 개 요인들 서로 간에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을 보였다.

공존타당도. 의존성 소척도의 공존타당도(concurrent validity)를 알아보기 위해 대인관계 의존 검사(IDI), 한국판 도식질문지(KSQ)의 상실우려와 의존 요인,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척도-단축형(BFNE), 대인관계 문제 검사(KIIP)의 비주장성, 과순응성, 자기희생 척도와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표 3).

의존성 소척도의 총점과 타당도 지표들 간에 .70~.37의 유의미한 정적 상관(p<.001)이 있었다. 다만 의존성 성격과 관련이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되었던 대인관계 의존 검사(IDI)의 자율적 주장의 경우에도 약하지만 유의미한 상관이 있었다. 한편, 의존성 소척도의 각 하위 요인들은 서로 유사하거나 동일한 구성개념을 평가하는 척도들과 가장 높은 관련성을 보였다.

성격장애 진단검사 회피성 소척도

신뢰도

회피성 소척도의 내적 일치도를 보기 위해 산출한 Cronbach-α 계수는 대학생 집단에서 .75, 일반인 집단에서 .72, 전체 집단에서 .73이었다. 회피성 소척도의 개별 문항과 회피성 총점 간의 상관은 3번 문항(r=.26)을 제외하면 .35(103번)~.65(89번)의 범위로 적절하였다. 개별 문항을 척도에 포함시키지 않았을 경우의 Cronbach-α 계수는 .69(89번)~.72(82번)로 대부분 척도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103번 문항과 3번 문항의 경우 문항 제외시 Cronbach-α 계수가 각각 .74, .75로 다소 상승되고 있어 내적 일치도를 저하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생과 일반인 60명을 대상으로 3주 간격 검사-재검사 신뢰도를 확인하기 위해 산관계수를 산출한 결과 대학생 집단에서는 .81, 일반인 집단에서는 .87, 전체 집단

표 3. 의존성 소척도와 공존 타당도 지표들과의 상관

		IDI			KSQ		BFNE	KIIP		
		정서적 의존	자신감 부족	자율적 주장	상실 우려	의존		비주장성	과순응성	자기 희생
의존성	열등감	.19***	.61***	.01	.28***	.50***	.22***	.38***	.35***	.19***
	정서적 의존	.52***	.44***	.11*	.56***	.44***	.37***	.33***	.35***	.30***
	염려감	.37***	.51***	.25***	.33***	.47***	.53***	.30***	.27***	.17***
	비주장성	.20***	.41***	.17***	.16***	.23***	.25***	.44***	.50***	.40***
	총 점	.48***	.70***	.20***	.50***	.59***	.51***	.51***	.52***	.37***

* p<.05, *** p<.001

주. IDI, 대인관계의존 척도. KSQ, 한국판 도식질문지. BFNE,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척도-간편형. KIIP, 대인관계문제 검사.

www.kci.go.kr

에서는 .84로 나타나 비교적 높은 수준의 안정성이 확인되었다.

타당도

요인분석. 회피성 소척도의 요인구조를 알아보기 위해 의존성 소척도에서와 동일한 방법으로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표 4). 요인분석 결과 '사회적 위축'(5문항), '타인의 평가에 대한 민감성'(4문항), '자신감 결여'(2문항)의 3개 요인이 추출되었으며, 전체 변량의 50.62%를 설명하였다. 59번 문항의 경우 본 요인분석에서는 사회적 위축에 포함되었으나, 요인부하량과 문항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사회적 위축보다는 타인의 평가에 대한 민감성에 더욱 적합할 것으로 판단되어 타인의 평가에 대한 민감성으로 포함시켰다. 회피성 소척도의 총점과 각 요인들 간의 상관은 .83~.64로 모두 유의미하였으며, 세 개 요인들도 서로 간에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을 보였다.

공존타당도. 회피성 소척도의 공존타당도(concurrent validity)를 알아보기 위해 사회적 회피 및 불편감 척도(K-SAD), 역기능적 신념 검사(DBT) 단축판,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척도-단축형(BFNE), 대인관계 문제 검사(KIIP)의 비주장성, 비사회성, 냉담척도와 상관분석

표 4. 회피성 소척도의 요인구조

	문 항	요인부하량		
		1	2	3
89	나 때문에 분위기가 어색해질까봐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부담스럽다.	.70		
11	사람들을 많이 접하게 되는 직업은 갖고 싶지 않다.	.70		
9	사람들과 사귀는 일은 그다지 부담스럽지 않다.*	.63		
20	다른 사람과 가까워지고 싶어도 웃음거리가 될까봐 꺼려진다.	.51		.36
3	사람들과 있을 때 내 얘기를 하기보다는 주로 듣는 편이다.	.50		
31	다른 사람으로부터 비난받거나 외면당해도 크게 상심하지 않는다.*		.75	
83	무슨 일이든 걱정을 별로 하지 않는다.*		.69	
79	잘 알지 못하는 사람과 함께 있어도 마음이 불편하지는 않다.*	.36	.59	
59	따돌림 당하거나 비난을 받게 될까봐 항상 신경이 쓰인다.	.40	.39	
103	나의 자질이나 능력은 남보다 부족하지 않다.*			.82
69	늘 해오던 일이 아닌 새로운 일은 잘 해낼 자신이 없고 걱정이 앞선다.		.39	.51
	고유값	3.17	1.37	1.03
	설명변량(%)	28.78	12.48	9.37
	누적설명변량(%)			50.62

주. 요인부하량은 .30 이상인 것만 제시되었음. 제시된 문항번호는 서재삼・황순택(2006)의 성격장애 진단검사를 기준으로 한 것임. *은 역채점 문항임.

www.kci.go.kr

표 5. 회피성 소척도와 공존 타당도 지표들과의 상관

		K-SAD	DBT			BFNE	KIIP		
			요인 1	요인 2	요인 3		비주장성	비사회성	냉담
회피성	사회적 위축	.63***	.47***	.12**	.24***	.28***	.33***	.53***	.40***
	타인의 평가에 대한 민감성	.50***	.33***	.31***	.27***	.59***	.30***	.37***	.25***
	자신감 결여	.40***	.42***	.24***	.37***	.28***	.33***	.37***	.25***
	총 점	.69***	.53***	.28***	.36***	.51***	.42***	.57***	.41***

* p<.05, ** p<.01, *** p<.001

주. K-SAD, 한국판 사회적 회피 및 불편감 척도. DBT, 역기능적 신념 검사 단축판. BFNE,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척도-간편형. 요인 1. 사회적 자기에 대한 부정적 개념. 요인 2. 타인의 인정에 대한 과도한 요망. 요인 3. 타인에 대한 부정적인 신념 및 실수에 대한 과도한 염려.
KIIP, 대인관계문제 검사.

을 실시하였다(표 5).

회피성 소척도의 총점과 타당도 지표들 간 상관은 .69~.28 범위로 모두 유의미하였다. 또한 회피성 소척도의 각 하위 요인들 역시 서로 유사하거나 동일한 구성개념을 평가하는 척도들과 가장 높은 상관이 나타나 상호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성격장애 진단검사 의존성 소척도와 회피성 소척도의 비교

의존성 소척도와 회피성 소척도의 요인분석

의존성 소척도와 회피성 소척도 각각에 대해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의존성 소척도에서 표 2와 같고, 회피성 소척도에서 표 4와 같다. 두 척도 모두에 공통으로 사용된 4개 문항(31, 69, 83, 103번)의 경우 의존성 소척도에서는 열등감(103번), 염려감(31, 69, 83번) 요인에 포함되어 있었고, 회피성 소척도에서는 타인의 평가에 대한 민감성(31, 83번), 자신감 결여(69, 103번) 요인으로 포함되어 있었다. 이로 미루어 볼 때 공통문항이 포함된 요인은 의존성 성격장애와 회피성 성격장애의 공통적인 특징을 담고 있을 가능성이 크며, 그 외의 요인은 의존성 성격장애와 회피성 성격장애의 고유한 특징을 각각 평가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두 성격장애의 특징이 유사하고 높은 공병이 있음을 고려할 때, 이 두 소척도가 두 성격장애를 정확히 감별하고 타당하게 평가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두 척도의 문항을 모두 사용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의 수를 미리 지정하지 않고 주성분분석을 실시하여 Kaiser 기준인 고유치(eigenvalue)가 1이 넘는 요인 6개를 추출한 결과, 6개 요인은 전체 변량의 52.87%를 설명하고 있었다. 이를 배리맥스(varimax) 회전시킨 결과는 표 6과 같다. 그 중 3번 문항의 경우 본 요인분석에서는 요인 6에 포함되었으나, 요인부하량을 고려해 볼 때 요인 6과 요인 1에 공통적으로 포함될 수 있는 문항으로 보인다. 또한 회피성 소척도만 따로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을 시

www.kci.go.kr

표 6. 의존성 소척도와 회피성 소척도의 요인구조

	척도	문 항	요인부하량					
			1	2	3	4	5	6
89	회피	나 때문에 분위기가 어색해질까봐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부담스럽다.	.72					
9	회피	사람들과 사귀는 일은 그다지 부담스럽지 않다.*	.68				.34	
11	회피	사람들을 많이 접하게 되는 직업은 갖고 싶지 않다.	.65					
20	회피	다른 사람과 가까워지고 싶어도 웃음거리가 될까봐 꺼려진다.	.44	.38	.33			
59	회피	따돌림 당하거나 비난을 받게 될까봐 항상 신경이 쓰인다.	.40	.38	.34			
3	회피	사람들과 있을 때 내 얘기를 하기보다는 주로 듣는 편이다.	.37					.48
19	의존	가까이 지내던 사람과 헤어지게 되면 대신 다른 누구든 의지할 사람이 있어야 한다.		.63				
88	의존	가까운 사람이 떠나게 되면 무척 당황하게 된다.		.60				
100	의존	가깝게 지내는 사람이 어느 날 나를 떠나버릴 지도 모른다는 걱정을 한다.	.38	.59				
30	의존	나 혼자 있으면 왠지 마음이 불안하여 집중하기가 어렵다.		.56	.33			
82	의존	반대 의견이 있으면 상대가 서운해 하거나 화를 내더라도 직접 말을 한다.*			.71			
27	의존	정당한 경우에라도 다른 사람에게 주장이나 요구를 잘 하지 못해 망설이는 경우가 있다.			.71			
103	중복	나의 자질이나 능력은 남보다 부족하지 않다.*				.80		
86	의존	나는 여러 면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능력이 떨어진다.				.78		
68	의존	어떤 일을 결정하거나 책임을 맡는 것은 매우 부담스럽다.			.45	.46		
69	중복	늘 해오던 일이 아닌 새로운 일은 잘 해낼 자신이 없고 걱정이 앞선다.			.39	.40	.34	
102	의존	무슨 일을 결정할 때는 다른 사람의 조언을 들어서 하는 것이 마음 편하다.		.37		.38		
83	중복	무슨 일이든 걱정을 별로 하지 않는다.*					.72	
79	회피	잘 알지 못하는 사람과 함께 있어도 마음이 불편하지는 않다.*	.36				.62	
31	중복	다른 사람으로부터 비난받거나 외면당해도 크게 상심하지 않는다.*					.59	
2	의존	나 자신의 입장이나 권리보다는 상대방이 원하는 바를 고려하여 행동한다.						.77
76	의존	다른 사람의 부탁이나 지시를 거절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						.61
		고유값	4.82	1.63	1.51	1.35	1.28	1.04
		설명변량(%)	21.91	7.41	6.87	6.15	5.83	4.72
		누적설명변량(%)						52.87

주. 요인부하량은 .30 이상인 것만 제시하였음. 제시된 문항번호는 서재삼·황순택(2006)의 성격장애 진단검사를 기준으로 한 것임. *은 역채점 문항임.

www.kci.go.kr

요인 1의 문항들과 함께 묶여졌던 점을 감안했을 때, 본 문항은 요인 6보다는 요인 1에 보다 적합할 것으로 판단되어 요인 1에 포함시켰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최종 결정된 6개 요인 중 회피성 소척도 문항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요인 1 '사회적 위축'과 의존성 소척도 문항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요인 2 '정서적 의존', 요인 3 '비주장성'과 요인 6 '과순응성'은 각각 회피성 성격장애와 의존성 성격장애의 고유한 특성을 평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의존성 소척도와 회피성 소척도에 공통적으로 사용된 문항이 포함되어 있는 요인 4 '자신감의 결여 및 열등감'과 요인 5 '타인의 평가에 대한 과민성'은 전반적으로 불안과 관련되며, 이는 성격장애 C군집에 속한 의존성과 회피성 두 성격장애의 공통적인 특성을 평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의존성 성격장애와 회피성 성격장애를 변별해줄 수 있는 요인은 각 장애의 전형적인 특징이 고유하게 묶인 요인 1, 2, 3, 6이 유용할 것으로 보인다.

의존성 성격장애와 회피성 성격장애의 변별

의존성향 집단과 회피성향 집단의 평균 비교. 요인분석 결과 두 성격장애의 고유한 특성을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난 4개 요인이 공통적인 특성을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난 2개 요인들에 비해 실질적으로도 변별력을 가지는지 알아보기 위해 566명의 자료 중 의존성향과 회피성향이 높은 집단을 각각 선별하여 두 집단 간에 6개 요인 점수의 평균 차이를 비교하였다. 우선 의존성 소척도 점수와 회피성 소척도 점수를 평균 50, 표준편차 10의 T점수로 각각 환산하여 T점수가 56점 이상인 상위 25%에 해당하는 개인들을 의존성향 집단과 회피성향 집단으로 분류하였다. 두 집단은 순수하게 하나의 성격 성향에서만 높은 점수를 받은 개인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의존성향 집단은 41명, 회피성향 집단은 58명으로 총 99명이 해당되었다. 위 6개 요인들에서 두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t*검증한 결과(표 7) 회피성 소척도 문항으로만 구성된 요인 1 '사회적 위축'에서는 회피성향 집단의 평균 점수가 유의미하게 높았고($t(97)=-12.97$, $p<.001$), 의존성 소척도 문항으로만 구

표 7. 6개 요인에 대한 의존성향 집단과 회피성향 집단 간 평균 비교

	요인구분	의존성향 집단 (N=41)	회피성향 집단 (N=58)	*df*	*t*
사회적 위축	회피요인	11.76(1.48)	15.67(1.48)		-12.97***
정서적 의존	의존요인	10.37(1.88)	8.31(1.79)		5.51***
비주장성	의존요인	5.93(1.01)	5.00(.96)	97	4.66***
자신감 결여 및 열등감	공통요인	12.98(1.52)	11.84(1.71)		3.38**
타인의 평가에 대한 과민성	공통요인	8.71(1.17)	9.17(1.35)		-1.78
과순응성	의존요인	6.15(.96)	5.29(.96)		4.36***

** $p<.01$, *** $p<.001$

www.kci.go.kr

성된 요인 2 '정서적 의존', 요인 3 '비주장성'과 요인 6 '과순응성'은 의존성향 집단의 평균 점수가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t(97)=5.51$, $p<.001$; $t(97)=4.66$, $p<.001$; $t(97)=4.36$, $p<.001$). 따라서 이 4개 요인은 각각 회피성 성격장애와 의존성 성격장애의 고유한 특성을 평가하고 있는 요인이며, 두 성격장애의 변별에 유용함을 시사한다. 그러나 요인 4 '자신감 결여 및 열등감'과 요인 5 '타인의 평가에 대한 과민성'의 경우 두 소척도에 중복하여 사용된 문항이 포함됨으로써 두 성격장애에서 서로 공유하는 부분을 측정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변별지표로써는 부적합할 것으로 보인다. 비록 요인 4의 경우 의존성 소척도에만 고유하게 속하는 문항이 중복문항보다 다수 포함되면서 의존성향 집단의 평균 점수가 유의미하게 높게 나오기는 하였으나, 두 성격장애의 공통적인 특징과 더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을 것으로 보여 변별의 정확도를 위해서 변별요인에서 제외하였다.

의존성 소척도 문항과 회피성 소척도 점수간 상관. 의존성 성격장애의 전형적인 특성을 평가하는 것으로 확인된 요인들의 문항 중 회피성 성격장애와의 변별력이 가장 우수한 문항을 찾아보기 위해 의존성 소척도의 개별 문항과 회피성 소척도 점수를 상관분석하였다. 그 결과, 31번, 69번, 83번 문항은 회피성 성격장애 점수와 .49~.63의 비교적 높은 상관을 보여 두 성격장애를 공통적으로 설명해주는 문항으로 사용되기에 적합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회피성 소척도 점수와 유의미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던 2번 문항과 .09~.28의 낮은 상관을 보인 19번과 76번, 82번, 88번 문항 등 5개 문항이 의존성 성격장애를 회피성 성격장애와 변별해주는 문항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102번 문항 역시 회피성 성격장애 점수와의 상관이 .24로 낮을 뿐 아니라 문항의 내용상 회피성 성격장애의 전형적인 특성과는 거리가 있음을 감안할 때 변별력이 기대되기는 하나, 의존성 성격장애와 회피성 소척도 문항을 합쳐서 요인분석을 했을 경우 공통요인인 '타인의 평가에 대한 과민성' 요인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활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회피성 소척도 문항과 의존성 소척도 점수간 상관. 회피성 성격장애의 전형적인 특성을 평가하는 것으로 확인된 요인들의 문항 중 의존성 성격장애와의 변별력이 우수한 문항을 알아보기 위해 회피성 소척도의 개별 문항과 의존성 소척도 점수 간의 상관을 산출하였다. 그 결과, 31번, 69번, 83번은 의존성 성격장애 점수와 .43~.65로 비교적 높은 상관을 보이고 있어 두 성격장애를 공통적으로 설명해주기에는 타당하나 두 성격장애의 변별에는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두 성격장애를 변별해주는 문항으로는 특히 의존성 소척도 점수와 유의미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던 3번을 비롯하여 .27과 .26으로 비교적 낮은 상관을 보인 9번과 11번 문항 등 3개 문항이 가장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79번의 경우 의존성 성격장애 점수와의 상관이 .29로 비교적 낮고 문항 내용이 의존성 성격장애의 전형적인 특성과는 거리가 있음을 고려할 때 변별력이 기대되기는 하나, 의존성 성격장애와 회피성 소척도 문항을 합쳐서 요인분석을 했을 경우 공통요인인 '타인의 평가에 대한 과민성' 요인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활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www.kci.go.kr

논 의

본 연구에서는 황순택(1995)의 성격장애 진단준거를 토대로 구성한 성격장애 진단검사(서재삼, 황순택, 2006) 중 의존성 소척도와 회피성 소척도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알아보고자 하였으며, 더불어 임상현장에서 높은 공병을 보이고 있는 두 성격장애를 잘 변별하고 타당하게 평가하는지 알아보았다.

두 소척도의 내적 일치도와 문항-총점 간 상관을 살펴본 결과, 의존성 소척도와 회피성 소척도의 내적 일치도는 각각 .74, .73으로 양호하게 나타났고, 문항-총점 간 상관도 전반적으로 적절한 수준임이 확인되었다. 3주 간격의 검사-재검사 신뢰도 역시 두 소척도에서 모두 높은 편이었다. 두 소척도 모두 서재삼과 황순택(2006)의 연구에서보다 내적 일치도는 다소 높았으며,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비슷한 수준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서재삼과 황순택(2006)이 보고했던 대로 본 연구에서 두 소척도의 내적 일치도는 MMPI 성격장애 척도의 의존성 소척도와 회피성 소척도에서 보고된 내적 일치도보다는 낮았다. 그러나 한국판 PDQ-4+의 의존성 소척도와 회피성 소척도에서 보고된 내적 일치도보다는 높게 나타났으며, 한국판 MCMI의 의존성 성격장애 척도와 회피성 성격장애 척도와는 비슷한 수준의 내적 일치도를 보고하였다. MMPI 성격장애 척도보다 내적 일치도가 낮게 나타난 것은 검사의 길이에 따른 영향인 것으로 짐작된다. MMPI 성격장애 척도는 의존성 소척도가 25문항, 회피성 소척도는 42문항인 데 비해 성격장애 진단검사의 의존성 소척도는 15문항, 회피성 소척도는 11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어, 성격장애 진단검사의 문항 수가 훨씬 적다.

의존성 소척도와 회피성 소척도의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각각 요인분석하고, 여러 준거 지표들과의 관련성을 보았다. 의존성 소척도는 열등감(3문항), 정서적 의존(4문항), 염려감(4문항), 비주장성(4문항)의 4개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이들 요인은 전체 변량의 49.70%를 설명하였다. MMPI 성격장애 척도 중 의존성 소척도에서는 '전반적인 무력감', '수동적 경향성',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 '수동적 경향성・위축・수줍음', '자신감 부족' 등 5개 요인이 보고되고 있으며, 총 설명변량은 45.3%로 나타났다(노주선, 안창일, 1995). 이 결과는 성격장애 진단검사의 의존성 소척도에서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과 유사한 요인이 발견되지 않은 점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비슷하다. 그러나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의 경우 노주선과 안창일(1995) 역시 성격장애 집단에서 이러한 특성이 발견될지는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의존성 성격장애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특성과는 다소 거리가 있으므로 성격장애 진단검사 중 의존성 소척도의 요인구조는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요인들의 설명변량의 경우 성격장애 진단검사의 의존성 소척도가 조금 더 높게 나타났다.

의존성 소척도의 4개 요인을 DSM-Ⅳ의 8개 진단준거와 연결지어 보면, '열등감' 요인은 진단준거 (4)와, '정서적 의존' 요인은 진단준거 (6)・(7)・(8)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염려감' 요인은 진단준거 (1)・(2)와 관련되며, '비주장성' 요인은 진단준거 (3)・(5)에 해당되어 의존성 소척도의 요인구조는 DSM-Ⅳ에서 제시하고 있는 의존성 성격장애의 진단기준을 잘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의존성 소척도와 준거 지표들과의 관련성을

www.kci.go.kr

살펴보면, 대인관계의존(IDI) 척도의 자신감 부족 요인 및 한국판 도식질문지(KSQ)의 의존 요인과 가장 높은 상관을 보였고, 다른 수렴 지표들과도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여 타당성이 확인되었다. 의존성 성격장애의 가장 핵심적인 특징이 의존임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 의존 요인과의 상관이 자신감 부족 요인보다 낮게 나왔던 것은 본 연구의 표집 자체가 정상인이므로 의존성 성격 성향이 두드러지는 개인들로 구성되어 있지 않아서 나타난 결과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의존성 소척도를 구성하는 각 하위요인의 경우에도 대부분 그와 유사한 구성개념을 측정하는 준거지표들과 가장 높은 상관을 보여 타당도가 확인되었다. 첫 번째 요인인 '열등감'은 다른 지표들에서보다 대인관계 의존 검사(IDI)의 자신감 부족과 한국판 도식질문지의 의존 요인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상관이 나타났다. 이는 한국판 도식질문지의 의존 요인의 경우 대부분 일상생활에서의 어려움이나 난관을 혼자서는 해결해나가지 못하고 타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내용의 문항들로 이루어져 있어 열등감 요인과 높은 관련성이 나타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 요인인 '정서적 의존'은 주로 가까운 관계의 상실에 대한 두려움 및 걱정과 관련된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어 한국판 도식질문지(KSQ)의 상실우려와 대인관계 의존 검사(IDI)의 정서적 의존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상관이 있었다. 타인의 비난이나 외면에 대한 상심 등 대인관계적 측면과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나타나는 걱정을 포함하는 세 번째 요인인 '염려감'은 타인의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척도 및 대인관계 의존 검사(IDI)의 자신감 부족에서 가장 높은 상관을 보이고 있다. 자신의 주장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자신의 입장보다는 상대방의 입장을 먼저 고려하고 거절을 하지 못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네 번째 요인인 '비주장성'의 경우 역시 대인관계 문제 검사(KIIP) 중 과순응성, 비주장성, 자기희생과 대인관계 의존 검사(IDI)의 자신감 부족 등과 비교적 높은 상관을 보여 대체로 서로 일치하는 척도와 특히 두드러지는 관련성이 확인되었다.

회피성 소척도의 경우 사회적 위축(5문항), 타인의 평가에 대한 과민성(4문항), 자신감 결여(2문항)의 3개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음이 밝혀졌으며, 전체 변량의 50.62%를 설명하였다. MMPI 성격장애 척도 중 회피성 소척도에서는 '대인관계에 대한 어려움'에 관련한 2개 요인과 '자신에 대한 부정적 인상·내성적인 경향에 따른 주관적 불편감', '자신에 대한 부정적 인상', '타인의 거절에 대한 두려움·대인관계에서의 수동성 및 부적응적 가치' 등의 5개 요인이 보고되고 있으며, 총 설명변량은 49.2%로 나타났다(노주선, 안창일, 1995). MMPI의 회피성 소척도의 요인 1, 2, 3은 '사회적 위축' 요인과 유사하며, 요인 4는 '자신감 결여'와 일부 관련되고, 요인 5는 타인의 거절을 비롯하여 일상생활 속에서의 걱정 등과 관련된 문항이 포함되어 있는 '타인의 평가에 대한 민감성' 요인과 전반적으로 유사하다. 즉, MMPI의 회피성 성격장애 척도보다 요인이 다소 포괄적으로 묶이기는 하였으나, 이는 문항 개수가 적어지면서 특정한 구성개념에 대해 기술하고 있는 문항 역시 MMPI보다 적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회피성 소척도의 3개 요인을 DSM-Ⅳ의 7개 진단준거와 연결지어 보면, '사회적 위축' 요인은 진단준거 (1)·(2)·(3)과 관련되고, '타인의 평가에 대한 과민성' 요인은 진단준거(4)·

www.kci.go.kr

(5)와 관련되며, '자신감 결여' 요인은 진단 준거 (6)·(7)과 관련되어 회피성 소척도의 요인 구조는 DSM-Ⅳ(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1994)에서 제시하고 있는 회피성 성격장애의 진단기준을 잘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회피성 소척도는 사회적 회피 및 불편감 척도(K-SAD)와 대인관계 문제 검사(KIIP) 중 비사회성과 가장 두드러지는 관련성을 보였으며, 다른 수렴 지표들과도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고하여 타당성이 입증되었다. 또한, 회피성 소척도를 구성하는 각 하위요인의 경우에도 다른 준거지표들보다도 대부분 그와 유사한 구성개념을 측정하는 준거지표들과 가장 높은 상관을 보여 타당도가 확인되었다. 첫 번째 요인인 '사회적 위축'은 사회적 회피 및 불편감 척도(K-SAD)와 대인관계 문제 검사(KIIP) 중 비사회성과 두드러지는 상관을 보였다. 두 번째 요인으로 대인관계 상황에서의 타인의 비난이나 외면에 대한 상심 및 새로운 사람과의 관계에서 경험하는 불편감 등과 관련된 '타인의 평가에 대한 과민성'의 경우 타인의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척도(BFNE)와 사회적 회피 및 불편감과 가장 관련성이 높았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요인인 '무능력감'은 자신의 능력에 대한 전반적인 불신감으로 역기능적 신념검사(DBT) 중 사회적 자기에 대한 부정적 개념과 가장 상관이 높아 역시 유사한 구성개념들 간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의존성 소척도와 회피성 소척도의 변별 및 임상적 유용성을 보기 위해 두 척도의 문항을 묶어 요인분석을 실시하고 개별 성격장애의 전형적인 특징을 포함하는 요인들과 공통적인 특징을 포함하는 요인들을 추출하였다. 그 결과, 두 성격장애 각각의 특징을 포함하는 요인은 개별 성격장애의 전형성을 보다 잘 반영해주고 두 성격장애를 보다 잘 변별해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두 성격장애의 공통적인 특성을 반영하는 요인의 경우 한 요인은 실질적으로도 유용성이 확인되었으나 다른 한 요인은 공통적인 특성을 평가하는 데 활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그 요인의 전반적인 성격은 두 성격장애의 공통적인 특성과 일부 관련이 있기는 하였으나, 어느 특정한 성격장애의 내용을 반영하는 문항이 공통특성을 반영하는 문항보다 많이 포함되면서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공통적인 특징을 포함하는 이 두 개 요인은 Gude 등(2006)의 연구에서도 보고된 바 있다. Gude 등은 DSM-Ⅳ의 의존성 성격장애 진단기준을 회피성 성격장애와 비교한 결과, 의존성 성격장애의 진단기준 (1), (2), (4)는 회피성 성격장애와도 많은 관련을 보이고 있었다고 보고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도 이들 진단기준과 관련된 것으로 나타난 요인들이 두 성격장애를 공통적으로 설명해주는 요인들로 나타났다. 이어, 개별 문항 수준에서 의존성 성격장애와 회피성 성격장애를 가장 효과적으로 변별해주는 문항을 찾기 위해 의존성 소척도의 문항과 회피성 소척도의 점수를, 회피성 소척도의 문항과 의존성 소척도의 점수를 각각 상관분석하였다. 어떠한 경우든 대부분의 문항에서 유의미한 상관을 보여 의존성 성격장애와 회피성 성격장애가 많은 특성을 공유하는 등 서로 관련되어 있음이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PDE(Personality Disorder Examination)의 의존성과 회피성 척도 간 높은 상관을 보고하였던 Rees, Hardy, 그리고 Barkham(1997)의 연구와도 일치하며, 의존성 성격장애의 경우 회피성 성격

www.kci.go.kr

특질과 뚜렷하게 중첩된다고 보고한 Reich (1990)의 연구 및 두 성격장애의 진단기준이 하나의 잠재적인 요인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주장한 Nestadt 등(2006)의 연구와도 유사하다. 결국 이는 두 척도에서 중복하여 사용된 문항과 함께 실제 임상 현장에서 보고 되고 있는 두 장애의 높은 공병률을 설명해준다. 두 척도에서 중복되는 문항의 경우에도 103번 문항을 제외하고는 다른 문항들에 비해 두드러지게 높은 상관을 보여 두 성격장애 모두를 타당하게 평가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두 성격장애를 변별해줄 수 있는 문항으로 서로 간에 상관이 없거나, 다른 문항에 비해 상대적으로 상관이 낮게 나타난 문항들으로는 의존성 소척도에서는 정서적 의존 요인의 19번과 88번, 비주장성 요인의 2번과 76번, 82번 문항이 회피성 성격장애와의 변별에 특히 유용하게 활용될 문항들로 나타났다. 또한, 회피성 소척도에서는 사회적 위축 요인의 3번과 9번, 11번이 두 성격장애를 특히 잘 변별해주는 문항들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성격장애 진단검사의 의존성 소척도와 회피성 소척도가 의존성 성격장애와 회피성 성격장애를 각각 신뢰롭고 타당하게 측정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두 소척도가 DSM-Ⅳ의 해당 진단준거들을 잘 반영하고 있으며, 두 성격장애를 변별적으로 측정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정상인을 대상으로 수행된 것인 만큼 추후 연구에서는 임상집단을 대상으로 두 검사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할 필요가 있겠다.

참고문헌

김동인, 최말례, 조은정 (2000). 한국판 성격장애검사(Personality Disorder Questionnaire -4+; PDQ-4+)의 신뢰도와 타당도에 관한 예비적 연구. 신경정신의학, 39, 525-538.

김영환, 홍상황 (1999). 대인관계 평가도구의 표준화연구: 대인관계 문제 검사와 원형척도. 성곡논총, 30, 537-594.

김영환, 진유경, 조용래, 권정혜, 홍상황, 박은영 (2002). 한국형 대인관계 문제 검사 매뉴얼. 학지사.

노주선, 안창일 (1995). MMPI 성격장애 척도의 구조분석: 정상인을 대상으로. 임상심리학회 '95 하계학술대회 논문집. 75-92.

박병관, 김진영, 노주선, 안창일, 신동균, 박영숙 (1991). MMPI 성격장애척도와 16PF 검사 구조분석: 성격장애척도 타당화 예비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0, 55-75.

서재삼, 황순택 (2006). 한국형 성격장애 진단검사의 개발과 타당화.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5, 273-288.

이정윤, 최정훈 (1997). 사회공포증에 대한 인지행동 치료와 노출치료의 효과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과 심리치료, 9, 35-56.

조성호 (2001). 한국판 도식질문지의 요인구조.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3, 177-192.

조용래, 원호택 (1999). 사회공포증에 대한 인지적 평가 Ⅲ: 역기능적 신념검사의 개발 및 타당화.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8, 141-162.

www.kci.go.kr

최영안 (2002). 한국판 MCMI-Ⅲ의 요인구조.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7, 241-255.

최정훈, 이정윤 (1994). 한국판 사회공포증 척도(K-SAD, K-FNE)의 신뢰도 및 타당도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6, 251-264.

홍세희, 조용래 (2006). 역기능적 신념검사 단축판의 구성: Rasch 평정척도모형의 적용.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5, 865-880.

황순택 (1995). 전형성 평정에 의한 성격장애 진단준거개발.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1994).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 4th Ed.* Washington: Author.

Anderson, C. A. & Harvey, R. J. (1988). Discriminating between problems in living: An examination of measure of depression, loneliness, shyness, and social anxiety.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6,* 482-491.

Beck, A. T. (1983). Cognitive therapy of depression; New perspective. In P. J. Clyton & J. E. Barnett(Eds.), *Treatment of depression: Old controversies and new approaches* (pp. 265-290). New York: Raven Press.

Beidel, D. C., Turner, S. M., & Dancu, C. V. (1985). Physiological, cognitive, and behavioral aspects of social anxiety. *Behavior Research and Therapy, 23,* 109-117.

Blatt, S. J. (1974). Levels of object representation in anaclitic and introjective depression. *The Psychoanalytic Study of the Child, 24,* 107-157.

Bornstein, R. F. (1992). The dependent personality: Developmental, social, and clinical perspectives. *Psychological Bulletin, 112,* 3-23.

Bornstein, R. F. (1993). *The dependent personality.* New York: Guilford.

Bornstein, R. F. (1998). Dependency in personality disorders: Intensity, insight, expression, and defense.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54,* 175-189.

Bornstein, R. F., & O'Neill, R., M. (2000). Dependency and Suicidality in Psychiatric Inpatients.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56,* 463-473.

Carrigan, M. H. & Randall, C. L. (2003). Self-medication in social phobia: A review of the alcohol literature. *Addictive Behaviors, 28,* 269-284.

Cramer, V., Torgersen, S., & Kringlen, E. (2006). Personality disorders and quality of life. A population study. *Comprehensive Psychiatry, 47,* 178-184.

Farmer, R. F. (2000). Issues in the Assessment and Conceptualization of Personality Disorders. *Clinical Psychology Review, 20*(7), 823-851.

Gude, T., Karterud, S., Pedersen, G., & Falkum, E. (2006). The Quality of Diagnostic and Station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Fourth Edition dependent personality disorder prototype. *Comprehensive Psychiatry, 47,* 456-462.

Hirschfeld, R. M. A., Klerman, G., Gough, H., Barrett, J., Korchin, S., & Chondoff, P. (1977). A measure of interpersonal dependency.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41,* 610-618.

Holt, C. S., Heimberg, R. G., & Hope, D. A. (1992). Avoidant personality disorder and the Generalized subtype of social phobia.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01,* 318-325.

www.kci.go.kr

Horowitz, L. M., Rosenberg, S. E., Baer, B. A., Ureño, G., & Villaseñor, V. S. (1988). Inventory of Interpersonal Problems: Psychometric Properties and Clinical applications. *Journal of Cou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6,* 885-892.

Leary, M. R. (1983). A brief version of the fear of Negative Evalution Scale.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9,* 371-375.

Linden, M. (2006). Minimal emotional dysfunctions (MED) in personality disorder. *European Psychiartry, 21,* 325-332.

Millon, T. & Davis, R. D. (1996). *Disorders of personality: DSM-Ⅳ and beyond.* New York: John Wiley & Sons.

Nestadt, G., Hsu, F. C., Samuels, J., Bienvenu, O. J., Reti, I., Costa, J. P. T., & Eaton, W. W. (2006). Latent structure of the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fourth edition personality disorder criteria. *Comprehensive Psychiatry, 47,* 54-62.

Pincus, A. L., & Gurtman, M. B. (1995). The three faces of interpersonal dependency: Structural analyses of self-report dependency measur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9, 744-758.

Pincus, A. L., & Wiggins, J. S. (1990). Interpersonal problems and conseptions of personality disorders. *Journal of Personality Disorder, 4,* 342-352.

Pincus, A. L., & Wilson, K. R. (2001). Interpersonal Variability in Dependent Personality. *Journal of Personality,* 69, 223-250.

Rapee, R. M., & Heimberg, R. G. (1997). A model of social phobia.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35,* 740-756.

Rees, A., Hardy, G., & Barkham, M. (1997). Covariance in the measurement of depression/anxiety and three Cluster C personality deisorders(avoidant, dependent, obsessive-compulsive). *Journal of Affective Disorder, 45,* 143-153.

Reich. J. (1990). Relationship between DSM-Ⅲ avoidant and dependent personality disorders. *Psychiatry Research, 34,* 281-292.

Reich. J. (2000). The relationship of social phobia to avoidant personality disorder: a proposal to reclassify avoidant personality disorder based on clinical empirical findings. *Eurepean Psychiatry, 15,* 151-159.

Reich, J. H. & Green, A. I. (1991). Effect of personality disorders on outcome of treatment. *Journal of Nervous and Mental Disease, 179*, 74-82.

Skodol, A. E., Oldham, J. M., Hyler, S. E., Stein, D. J., Hollander, E., Gallaher, P. E., & Lopez, A. E. (1995). Patterns of anxiety and personality disorder comorbidity. *Journal of Psychiatric Research, 29,* 361-374.

Solano, J. J. R. & Chávez, M. G. D. (2000). Premorbid personality disorders in schizophrenia. *Schizophrenia Research, 44*, 137-144.

Soldz, S., Budman, S. Demby, A., & Merry, J. (1993). Repesentation of Personality disorders in circumplex and five-factor space: Explorations with a clinical sample. *Psychological Assessment, 5,* 41-52.

Turner, S. M., Beidel, D. C., & Townsley, R. M.

www.kci.go.kr

(1992). Social phobia: A comparison of specific and generalized subtypes and avoidant personality disorder.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01,* 326-331.

Watson, D., & Friend, R. (1969). Measurement of social-evaluative anxiety.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33,* 448-457.

Widiger, T. A., & Bornstein, R. F. (2001). Histrionis, narcissistic, and dependent personality disorders. In: Adams, H. E., Sutker, P. (Eds.), *Comprehensive Handbook of Psychopathology, 2rd Edition,* Plenum Press, New York.

Young, J. E. (1990). *Cognitive therapy of personality disorders: A schema-focused approach.* Sarasota, FL: Professional Resource Press.

Young, J. E. (1991). *Early maladaptive schemas.* Unpublished manuscript.

원고접수일 : 2008. 2. 1.
게재결정일 : 2008. 2. 11.

www.kci.go.kr

한국심리학회지 : 임상
The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2008, Vol. 27, No. 1, 311-332

Reliability and Validity of Dependent and Avoidant subscales of the Diagnostic Test for Personality Disorders

Eun Jung Noh **Soon-Taek Hwang** **Hyoung-Mo Ku** **Suk Hee Lee**

Department of Psychology,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nfirm the reliability and validity of the dependent subscale and the avoidant subscale of the Diagnostic Test for Personality Disorders(DTPD; Seo & Hwang, 2006). Two subscales of the DTPD and several tests known to measure dependent and avoidant traits were administered to 566 respondents(286 college students and 280 adults). Internal consistencies and test-retest reliabilities of two subscales of the DTPD were considered to an acceptable level. Factors of these two subscales conform to diagnostic criteria of the DSM-IV(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1994). Correlations of two subscales of the DTPD with tests known to measure dependent and avoidant traits proved the concurrent validities. These results suggest that two subscales of the DTPD have reliability and validity to measure the Dependent Personality Disorder and the Avoidant Personality Disorder respectively.

Key words : Dependent, Avoidant, Diagnostic Test for Personality Disorders, Reliability, Validity

www.kci.go.kr